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29.(목) 06:00 < 5.29.(목) 석간 > 배포 2024. 5. 28.(수)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 산업부, 몽골과 정부간(G2G) 국제감축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 맺어 -
- 몽골 게르지역 대기질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은 5.29(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몽골 게르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몽골에서는 시장경제주의 도입과 급격한 도시화로 울란바토르시 외곽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이 겨울철(영하 40도) 난방 목적으로 게르*에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금속 배출 등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몽골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에 달하는 80만명(추산)이 게르에 거주 (몽골 경제개발부)

동 MOU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게르의 단열, 연료전환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MOU이다. 동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민간투자 지원을 통해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동 사업은 정부간 직접 협력을 통해 최초로 실행되는 국제감축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축여력이 높은 반면, 감축사업을 위한 기술·재원은 부족한 몽골은 한국과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을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국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책임자	팀 장	김형석 (044-203-4068)
		담당자	사무관	박형진 (044-203-40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